



# 최근 산업보건동향

한국산업위생협회  
kohma.kr

E-mail kohma@kohma.kr

Tel 02-782-3380

Fax 02-836-3380

[발행일] 2023. 02. 17

## 2023 KOHA 정기총회

### 2023 정기총회 개최

- 2023 정기총회(2.15, 회장 기윤호)를 개최하여 이사·감사 선임, 사업 실적, 향후 사업 계획, 발전기금 운영 등을 보고하였으며, 이에 따른 한국산업위생협회의 정기총회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산하단체인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의 정기총회(2.16, 회장 이동학)를 개최하여 작업환경측정전문가의 윤리강령을 공포함으로써, 산업보건의 최종 목표인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힘을 다짐하고, 산업보건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선언하였다.



<2023 한국산업위생협회 정기총회>



<작업환경측정전문가의 윤리강령 공포>

### 2023 정기총회 관련 의결 안건

- **안건 1 이사, 감사 선임(이사회 추천)**
  - 기윤호 이사 중임(상임, 등기)  
임기 : 2023. 02. 15 ~ 2026. 02. 정기총회
  - 이경화 이사 선임(비상임, 등기)  
임기 : 2023. 02. 15 ~ 2026. 02. 정기총회
  - 보직변경 (방문규 : 비상임, 등기) : 이사 → 부회장
  - 감사 추천 : 어원석 감사 중임 (비상임)  
임기 : 2023. 02. 15 ~ 2025년 정기총회
- **안건 2 2022년 사업실적 보고**
  - 보건진단 : 11개소
  - 도급승인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대한 평가 : 13개소
  - 산업보건건설팅 : 4개소
  -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 14개소
  - 전년도 대비 매출액 **30.6% 증가**
- **안건 3 2023년도 사업 계획**
  - 보건진단 : 10개소
  - 안전보건평가 : 20개소
  - 산업보건건설팅 및 기타 : 10개소
  -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 15개소
  - 국고사업 : 300개소
- **안건 4 발전기금 운영 보고**
  - 협회 다이어리 제작 : 2022. 12  
목적 : 협회 홍보 위한 배포용 다이어리 제작 배포
  - 발전기금 사업 계획(2023년)  
2023년도 발전기금운영계획 수립 실행 : ~ 4월

정부·국회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63호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0101303

코로나-19, 지난 3년간 감염병 대응의 변화

• 코로나-19, 지난 3년간 감염병 대응의 변화
- 과학방역체계 전환 이후 감염병 대응 현황-
1. 코로나 유행 양상 및 대응 변화
• 집단감염 형태로 수도권(1차, 20.2월~5월), 비수도권(2차, 20.8월~10월) 중심의 대유행이 발생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20.2.29~) 등 강화된 방역정책을 통해 코로나 유행에 대응하였으며, 요양병원, 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3차, 20.11월~21.2월) 이후 처음으로 일일 발생 확진자 1천 명을 초과하는 등 확진자 수 급증이 시작되었다. -중략-
• 2차 접종의 효과 감소, 방역조치 완화, 전파력이 높은 오미كرون 변이 출현(21.12.1.~)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여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게 되었다. -중략-
2. 안전한 일상으로의 점진적 변화
• 지난 재유행 기간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하는 양상을 보이던 것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22.4.18.) 이후 재유행 상황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지 않고 완만한 증가세와 감소세 전환의 안정적인 추세를 보임으로써 성공적인 생활방역체계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CONT\_SEQ=374685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 및 기업의 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과제 논의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26일(목) 오후 2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토론회에는 전문가, 노사단체, 산업현장 안전담당자가 참석하였고, 유튜브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 이번 토론회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1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경과를 돌아보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강화 및 기업의 안전 투자 촉진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대상 기업의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오히려 법 적용 전보다 8명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보강이나 예산 투자보다는 경영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 수요가 확대되었고, 의무이행을 위한 광범위한 서류작업에 치중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2024년부터 50인 미만 기업으로 법 적용이 확대됨을 고려할 때 법 이행 및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에게 활발한 토론을 요청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강검윤 과장은 2022년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특징,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진행 경과를 설명하였다.
• 두 번째로 김성룡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특징'에 대해 발제했다. 김성룡 교수는 먼저 “송치까지 평균 약 9개월을 넘기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고, 현장에서는 높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로펌이나 고문변호사의 고용 등을 통해 수사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 수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후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562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의 본격 실시를 위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고위험사업장 8만 개소(초고위험사업장 2만 개소 포함) 선별·집중 관리
- 올해부터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새롭게 도입·시행 (1만개소)
- 일반감독은 핵심 분야별로 사전예방에 초점 (약 1만개소)
- 모든 점검·감독 시, 사고사망자 수의 65.4%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 4개 항목을 필수적으로 확인
-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모든 사업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늘(1.31.)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30.)에 따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 지난해 조사대상 중대재해로 인한 근로자 사망자 수는 644명으로 2021년 대비 39명 감소했다. 하지만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되지 않아 발생한 추락, 끼임, 부딪힘 사고사망자 수는 421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 수의 절반 이상인 65.4%를 차지한다.
- 지난해까지 산업안전보건감독은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처벌하는 데 방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은 감독을 통해 적발된 것만 개선하는 등 소극적 대응을 해왔고, 감독이 현장의 예방역량을 높이는 등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은 지난해 11.30.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취지를 반영했다. **-중략-**
- 고용노동부는 올해 1년 동안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1만개소, 일반감독 및 특별감독 1만개소 등 총 2만개소에 대해서 점검 또는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점검 또는 감독을 실시하면서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본부(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 간 연계를 통해 빈틈없는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585](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585)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이후,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2.8.) 운영**

-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위험성 평가 중심 점검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늘(2.8.)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30.발표)에 따른 위험성 평가 중심의 '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을 발표(23.1.31.)한 이후 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올해 '현장점검의 날' 점검내용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과 위험성 평가 이행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 2022년 3대 사고유형인 추락, 끼임, 부딪힘으로 사망한 근로자 수는 421명으로 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수 644명의 절반 이상인 65.4%이다.
- 이에 올해부터 점검내용을 3대 안전조치 점검에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으로 확대하여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 가능한 사고를 감축하고자 한다. 아울러,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여부는 불시감독과 연계하여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략-**
- 현장점검의 날 점검대상은 지난해와 같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제조업, 50억 원 미만 건설업 등 → 집중적인 관리.점검 계속 -
- 현장점검의 날의 주된 점검 대상은 50인억원 미만 중·소규모 제조·건설업이다. 현장점검의 날은 '21년 7월부터 매월 격주로 운영해 왔으며, '22년에는 3.8만 개소를 점검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2.2만 개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였다.
- 특히, 전체 점검 사업장의 88.5%인 3.2만개소가 50인억원 미만 중·소규모 제조·건설업에 집중되었다. 올해도 50인억원 미만 중·소규모 제조·건설업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기업의 사고사망 발생을 감축하고자 한다.
-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본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도 '23년도 '현장점검의 날'에 최소 월 1회 이상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을 지도하는 등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 중·소규모 기업은 컨설팅, 재정지원 사업,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 -
- 이후 생략 -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621](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621)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가이드 제작·배포**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9일 위험성 평가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 책임'으로 산업안전 사고체계를 전환한 바 있다. **-중략-**
-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방식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 결과를 현장 근로자까지 전달하고 공유하여야 한다."라며, "이번 가이드 배포를 계기로 현장 단위에서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가 활성화되어 중대재해 감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630](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630)

**고용노동부 밀폐공간 출입 시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 2023.1.31.(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밀폐공간에 출입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야자탄을 교체하기 위해 밀폐공간에 들어갔던 근로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현재, 사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간이용 산소마스크가 발견되어, 당시 규정에 맞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존재하는 작업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킬 경우에 공기호흡기1)나 송기마스크2)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중략-**
-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편의성을 이유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재 대피용 간이 산소마스크를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 밀폐공간의 경우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독가스 농도가 높아 화재 대피용 간이 산소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에 중독될 위험성이 있고, 따라서 반드시 유해가스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춘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 한편,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One-Call 서비스」를 통해 무상 대여가 가능하며, 필요한 사업주는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여 활용할 수 있다(신청: T.1644-8595).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638](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638)

**고용노동부, 급성중독 및 직업성 암 예방을 위한 환기장치 지원사업(158억원) 새로 시작**

- 50인 미만 사업장은 설치비용의 70%(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17.(금)부터 급성중독 및 직업성 암 등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 이번 환기장치 지원사업은 '22년 발생한 세척공정 집단 급성중독과 단체 급식시설에서의 폐암 등의 사례가 공통적으로 환기시설의 부재 또는 성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마련되었다.
-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예방사업으로 '23년부터 환기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환기장치는 급성중독 예방 등 근로자 건강보호에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한 실정이다.
-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고려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급성중독 예방하기 위하여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신규로 마련하였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환기장치뿐만 아니라 조리실 폐암 예방을 위한 조리시설용 환기장치도 포함된다.
- 고용노동부는 158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370여 개 사업장을 지원하며,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50인 이상 사업장은 설치비용의 50%, 50인 미만 사업장은 70%까지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대책은 적절한 '환기장치'의 설치이다. 사업장에서는 수많은 독성물질이 사용되지만 환기가 충분하면 안전할 수 있다."라며,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업장은 2월 17일부터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1644-8845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지청, 지난해 10월 21일 안성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현장소장"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구속**

-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강금식, 이하 '경기지청'이라 함)은 지난해 10월 21일 경기 안성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무게를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이하, '거푸집 동바리'라고 함)의 붕괴로 5명의 근로자를 사상(사망 3명, 부상 2명)하게 한 원청 현장소장 A씨와 하청 현장소장 B씨를 2월 16일 " 산업안전보건법 "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 경기지청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A씨, 콘크리트 타설 업체 현장소장 B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콘크리트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거푸집 동바리가 무너져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 앞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망사고 발생 5일 후인 지난해 10월 26일 관련자들 소환 및 건설사 본사, 현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여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한 바 있다.
- 아울러, 경기지청은 경영책임자의 " 중대재해처벌법 " 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 강금식 경기지청장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하다 근로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예견된 위험을 묵인, 방치하다 대형사고를 유발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665](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665)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661](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661)

## 안전보건공단

### 주간 사망사고 속도

- [1/19, 부산 영도구] 철골 빔 상부로 이동 중 떨어짐
- [1/23, 목포 연산동] 양망 작업 중 양망기에 끼임
- [1/25, 포항 북구] 태양광 배선작업 중 떨어짐
- [1/26, 광양 마동] 신호작업 중 레미콘 차량과 충돌
- [1/26, 진주 지수면] 작업 중 채광창을 밟고 떨어짐(5m)
- [1/27, 인천 연수구] 이동식 틀비계에서 내려오던 중 떨어짐
- [1/28, 부산 사하구] 고소작업차에서 작업 중 떨어짐(7m)
- [1/28, 포항 오천읍] 크레인으로 이동 중인 자재가 떨어져 깔림
- [1/31, 경기 양주시] 가동 중인 기계를 정비하던 중 끼임
- [1/31, 전남 완도군] 어구줄에 감겨 바다에 빠짐
- [1/31, 충북 청주시] 기계 정비 중 끼임
- [1/31, 경기 용인시] 콘크리트 보양장소 진입 중 질석
- [1/31, 경남 하동군] 깃목 탑승 중 바다에 빠짐
- [2/1, 평택 가재동] 개구부 덮개 해체 중 떨어짐(5.6m)
- [2/3, 서울 서초구] 구조물 해체작업 중 빔 서포트에 부딪힘
- [2/3, 파주 적성면] 초고압살균기 시운전 중 폭발
- [2/4, 시흥 거모동] 외벽 페인트 작업 중 떨어짐(3m)
- [2/5, 의령 가례면] 지붕재 교체 작업 중 떨어짐(5.8m)
- [2/5, 과산 청안면] 집재작업 중 굴착기 전도되어 깔림
- [2/6, 충북 음성군] 적재물 고정작업 중 쏟아져 깔림
- [2/7, 전남 순천시] 철거 작업 중 떨어짐
- [2/8, 충남 천안시] 화물차에서 내려오던 중 떨어짐
- [2/8, 전남 강진군] 계단참 용접작업 중 떨어짐
- [2/9, 충남 보령시] 청소작업 중 떨어짐
- [2/11, 경남 김해시] 도색작업 중 떨어짐
- [2/11, 경기 부천시] 거푸집 설치 작업 중 떨어짐
- [2/13, 경기 남양주시] 차량 해체 작업 중 깔림
- [2/13, 경기 광주시] 후진하던 화물차와 충돌
- [2/14, 충남 논산시] 나무가 넘어지면서 깔림
- [2/14, 강원도 강릉시] 거푸집 해체 작업 중 떨어짐
- [2/14, 인천광역시 중구] 공사자재 정리 작업 중 떨어짐

### 유해·위험기계 제조업 안전연구개발 지원 및 위험성 평가 적용 계획 안내합니다

- **소요비용의 60% 이내 최대 5천만원 ... 1월 30일(월) 부터 접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원장 신용우)은 우수한 안전인증제품의 개발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유해·위험기계 등 제조업체의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 올해 지원사항은 안전인증 대상품 등의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비용(소요비용 60%내) 또는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장비 구매비용(소요비용의 50%내)에 사업장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이하 생략-**
- ※ 선정 제외 : 같은 사업주(개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구분)로 신청 직전년도 기준 최근 10년간 지원받은 금액의 합산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장
- \* 제조업체 등록 양식
- 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miis.kosha.or.kr/oshci/) > 제조업체지원 > 신청서식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38008&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2023년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실시 공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2023년 안전보건교육기관(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 직무교육기관) 평가 실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http://www.kosha.or.kr) > 알림소식 > 공지
- 첨부파일
- [붙임1] 2023년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실시 공고
- [붙임2-1] 2023년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지표
- [붙임2-2] 2023년 직무교육기관 평가지표
- [붙임3]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 [별첨] 자체평가보고서 및 kb2가입 안내 등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38235&article.offset=0&articleLimit=10>